

제15권 21호

2025. 11. 3~2025. 11. 23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초거대 기반 모델 시대의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
| 이슈분석 | 빈집 문제에 대한 고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 금융경영브리프 | 글로벌 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JP모건, 전략산업 육성 위한 1.5조 달러 투자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강금석
--------------	-----

이슈분석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송재만(jmsong)
연구원	송형온(hesong)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	---------------

제15권 21호

2025. 11. 3~2025. 11. 23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초거대 기반 모델 시대의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 04 **이슈분석** 빈집 문제에 대한 고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08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JP모건, 전략산업 육성 위한 1.5조 달러 투자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초거대 기반 모델 시대의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강 금 석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2016년 알파고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의 충격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기반 인공지능 모델로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은 기업 경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전략적 이슈가 되었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초거대 기반 모델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특정 도메인 기반 모델을 통한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인공지능은 초거대 기반 모델이 주도

ChatGPT로 대표되는 최근의 인공지능은 초거대 또는 거대 모형이다. 인공지능의 크기는 파라미터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다. 파라미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의 패턴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구하는 일차원 선형회귀 방정식(i.e., $y=b_0+b_1x+e$)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파라미터는 기울기(b_1)와 y 절편(b_0) 두 개가 된다.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은 주어진 수학적 수식(여기서는 일차선형식)을 지키면서 데이터의 패턴을 가장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들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선형회귀식의 경우는 선형 직선의 특징 때문에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최근 인공지능 모델의 근간이 되는 인공신경망, 그것의 복잡한 형태인 딥러닝은 이론적으로 어떠한 비선형 곡선(면)을 다차원 공간에 그리는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곡선(면)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의 수도 아주 많아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것도 어렵다. 어렵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라미터 값의 많은 조합의 확인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파라미터 조합이 데이터 패턴을 잘 설명하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합 수에 비례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과 방대한 데이터를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만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은
초거대 기반 모델
위에서 개발

이는 인공지능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일부만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현재의 디지털 혁명을 원초적으로 가능하게 한 인터넷 기술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초거대 모형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목적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편적인 목적을 가진 인공지능은, 기본적인 기능이 이미 사전 학습되어(pretrained)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변형 또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런 모형을 기반(foundation) 모델이라고 부른다. 현재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두 가지 보편적 영역의 기반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 모델이다. 언어와 이미지는 가장 일반적인 도메인 영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 세분화된 영역(예: 의료, 코딩 등)에서도 거대 기반 모델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 초거대 기반 모델이 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

인공지능 자체
인하우스 개발시대는
종료

초거대 기반 모델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일반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이제는 인공지능을 각자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하우스 개발 시대는 거의 끝났다는 것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남이 만든 인공지능을 가져다 사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고치거나, 확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성과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업에게 이런 모델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어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선정하고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 생존에 영향

현재 SAP로 대표되는 기업 정보시스템인 ERP 패키지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처음에 ERP 시장이 생기고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수용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가 온 것이다. ERP 도입을 여러 이유로 거부하거나 미룬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가 차이가 났듯이, 그리고 도입을 결정한 기업들 중에서도 ERP를 기업의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하면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미래가 차이가 났듯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현하고, 업무 및 조직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되었다. 초거대 기반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으로, 함께할 경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의미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춘추전국시대이다. ERP 시장 초창기에 있었던 많은 ERP 패키지 벤더들이 사라졌듯이, 아직 누가 인공지능 기반 모델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모른다. OpenAI, Meta, Google 등의 업체들이 리딩하고 있지만, 끝이 난 줄 알았던 초거대 기반 모델 시장에 최근 DeepSeek와 같은 신진 기업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다른 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보다 나은 경제성과 경쟁력을 제공해서 시장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다. 또한 오픈소스와 클로즈드소스 모델이 공존하고, 기반 모델을 변경 또는 확장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제안되는 등 기술적인 아키텍처도 계속 경쟁하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늦는다. 지금은 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본인 기업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기술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비즈니스적, 기술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변화에
순응하여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 특정 도메인 기반 모델 : 금융 인공지능 기반 모델 시장

모든 인공지능이 일반 범용 목적의 초거대 기반모델 중심으로 개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와 일반화가 가능한 특정 도메인 영역에서의 기반 모델 중심의 인공지능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기업 소프트웨어도 의료, 금융, 제조 등 특화 범용 패키지가 있듯이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형태의 도메인 특화 범용 모델이 필요하다. 언어, 이미지 기반의 초거대 모델과는 다르게 특정 도메인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모델은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 중 특히 도메인 데이터와 지식을 가진 기업이 인공지능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영역은 초거대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메인 관련 고품질의 데이터와 도메인을 잘 아는 지식이다.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금융 도메인 인공지능
기반 모델은 국내
금융기업이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

금융은 예전부터 데이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은 산업 영역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금융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IT 기술도 선진 수준에 있다. 기반 모델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금융 기업들이 인공지능 소비 기업에서 금융 범용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공급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빈집 문제에 대한 고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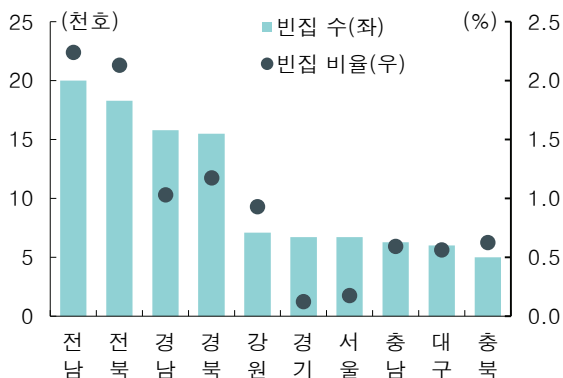
황 규 완 연구위원

고령화 심화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빈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책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여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단순한 빈집의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빈집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에 나서야 할 때로 보인다.

■ 전국적인 노령화 심화로 향후 국내 빈집 증가에 대응하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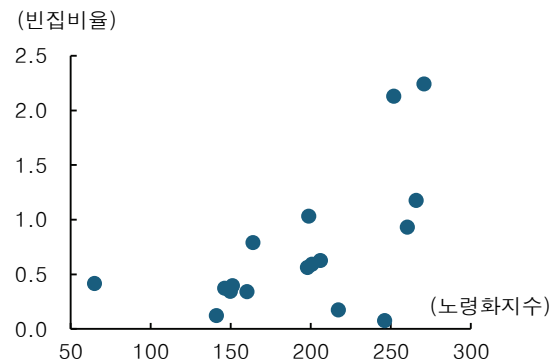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본(10년)보다 빠른 수치
-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4만호이며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빈집 비율)은 0.6%에 불과하나 전남, 전북 등과 같이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향후 빈집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
 - 국내 시도별 노령화 지수와 빈집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579로 높은 편
- 이와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빈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국내 빈집 현황



주 : 빈집비율 = 지역 빈집 수(2024년) ÷ 지역 총 주택 수(2023년)
자료 : 행정안전부, 하나금융연구소

■ 국내 시도별 노령화 지수와 빈집비율과의 관계



주 : 노령화지수(2024년) = (65세 이상 인구 수 ÷ 15세 미만 인구 수) × 100
자료 : 행정안전부, 빈집애(愛), 국토교통부,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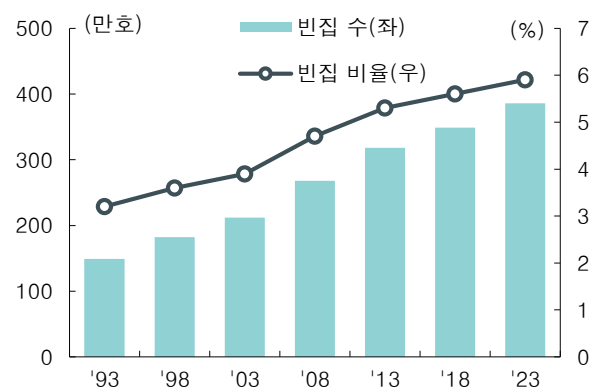
■ 일본의 빈집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주택 수의 5.9%를 차지

- 고령화,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실질적인 빈집¹⁾ 수는 2023년 현재 총 386만호, 전체 주택의 5.9% 수준으로 집계
- 일본의 빈집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쿄도, 오사카부와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중
 - 일본 대도시 빈집 비율(2023년) : 도쿄도 2.6%, 교토부 6.2%, 오사카부 4.6%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빈집이 470만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빈집 관리 정책의 목표
 - 억제된 70만호 중 50만호는 재활용하고, 20만호는 철거할 계획

■ 빈집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나 방치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

- 빈집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도록 정책을 구상
 - 정부 및 지자체는 빈집 관리의 기본 법률인 ‘빈집대책특별조치법’(2017년)에 의거하여 빈집 관리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중
- 일본 정부는 잘 관리된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고정자산세) 할인 및 매각 시 양도세 특별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
 - 반면, 방치할 경우 혜택이 철회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패널티를 부여
- 다만, 외지에 있는 소유자가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지자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일본 빈집 수와 빈집 비율



자료 : 일본 총무성

■ 일본의 빈집 관리 기본 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빈집* 관리 강제	조안 지도 → 권고 명령 → 과태료 철거
특정 빈집 세부담 증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감액 대상에서 제외
빈집 관리 지원 법인 제도 신설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비영리 법인 인정
공가 등 활용 촉진구역 신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빈집 활용
원활한 행정 대집행	행정상 필요에 따라 명령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빈집 철거를 허용

주 : 특정 빈집이란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안전이나 위생,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당 지자체가 인정한 빈집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1] 일본의 빈집 관리 근거법인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빈집을 임대 주택 중 현재 공실인 주택, 매물이면서 사용하지 않는 주택,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는 빈집, 그 외 빈집 등 4종류로 구분하며 이 글에서는 그 외 빈집만을 빈집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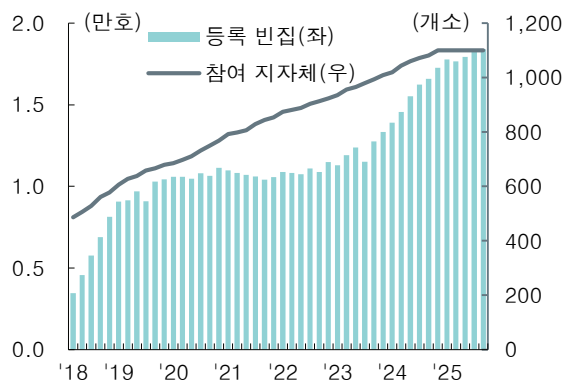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 은행을 설치, 운영 중

- 일본 각지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집을 사려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2]
-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등은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하여 ‘빈집 은행’을 설치, 운영 중
 -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이며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하여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25.9월 현재 1,119개(일본 전체 기초지자체의 62.6%) 지자체에서 총 1.8만호의 빈집을 빈집 은행에 등록하여 처분을 촉진하는 중

■ 처분 외에 관리 또는 활용 증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

- 빈집 은행을 활용한 처분은 수요 부족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처분 이외의 포괄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중
- 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 관리 방안을 상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창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민간의 전문가(사회복지사, 건축사, 지방은행, 법무사 등)와 협업하여 모색하는 구조
 - 일본의 빈집 소유자 28.2%는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
- 또한, 향후 빈집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빈집의 리모델링 및 단기 숙박업 또는 공유주택으로의 전용 등)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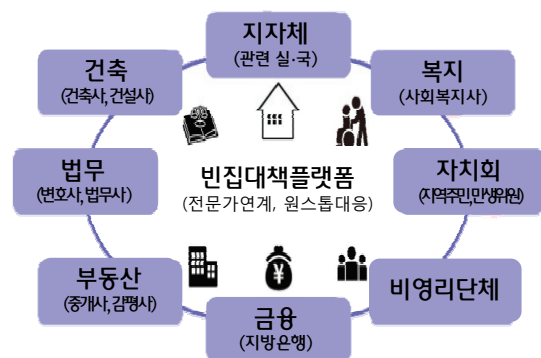
■ 일본 빈집은행 운영 실적 추이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2] 국토교통성(2019), 빈집소유자실태조사

■ 빈집 상담창구 등 민간연계지원 정책 구조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 정부는 빈집 관리 체계를 일신하기 위해 최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 우리나라의 빈집 관리는 2002년(농어촌정비법)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3년에 처음으로 통합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등 성과는 미진한 상황
 - 추진 체계가 농어촌(농어촌정비법)과 도시(빈집정비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별법)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2025.5월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빈집을 관리하는 방안이 골자
- 특히,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되 철거 또는 활용 시 세부담 완화 및 빈집의 민박 전환 등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

■ 빈집 관리 정책이 단순한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으로써의 활용성 확대에 확장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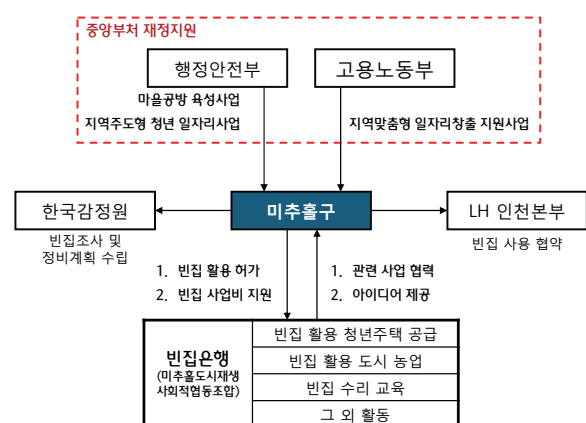
- 최근 들어 정부가 법체계 일원화 등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
 - 인천 미추홀 빈집은행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업으로 빈집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대표적 사례(이다예, 2018)
-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의 모색,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활용 유도 등의 측면에서 민간이 참여할 경우 효율성 증진이 기대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민간 기업(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역 전문가와의 연계 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

① 전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체계 구축, 빈집 통합 관리·활용 플랫폼 구축
② 빈집 정비, 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역맞춤형 활용 지원, 리모델링 또는 철거 지원, 빈집 인근 치안 및 안전 강화
③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조례 및 조직 재정비, 빈집 관련 정보 수집 지원
④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관리책임 강화 및 철거 지원, 빈집 활용 사업 활성화, 세부담 조정, 거래지원 체계 구축, 홍보 강화

자료 : 정부 보도자료(25.5) 발제

■ 빈집은행의 민관협력구조(미추홀 빈집은행 사례)



자료 : 이다예(2019),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국토연구원

글로벌 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송재만 연구위원

Citi는 2026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자체 솔루션과 외부 파트너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운영해 자산 유형별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는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내 본격 진출을 의미하며, 수익 다변화 및 서비스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은행은 규제 완화로 관련 서비스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에 따른 커스터디 시장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Citi, 2026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 출시 예정^[1]

- CNBC에 따르면 Citi는 2026년 중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2~3년 전부터 개발을 진행했으며, 커스터디 서비스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토큰화 예금 도입 등도 추진 중
- Citi 커스터디 서비스는 자체 개발 솔루션과 외부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형태로 운영될 전망
 -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자체 솔루션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규제 및 기술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파트너 솔루션을 활용할 방침

■ 검증된 인프라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목적

- Citi의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는 기관 대상 커스터디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외에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내 전통 금융회사의 본격적인 진출을 의미
- Citi는 서비스 출시로 인해 수익 다변화 및 기존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선점 효과가 예상
 - 기존 자산관리·수탁 비즈니스는 디지털자산까지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대 등도 기대
 - 다만,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의 특성상 변동성·규제·기술 등 다양한 리스크 존재

[1] "Citi targets 2026 launch for crypto custody service as Wall street dives deeper into digital asset", CNBC, 2025.10.13

■ 규제 완화 등으로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법 변화가 가속화

- 그동안 전통 금융회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했으나 최근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접근법이 변화 중
 - DBS는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출시('20)하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으나 당시 주요 글로벌 은행은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니즈가 크지 않아 소극적 대응
 - 최근 GENIUS Act 등 규제 완화 이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등을 모색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의 경우, 주요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거래소 또는 커스터디 관련 전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
 - BlackRock 등 대형 자산운용사는 Coinbase 등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를, BNP Paribas, ANZ, BNY Mellon 등 글로벌 은행은 Fireblocks 등 전문 기업 서비스를 활용
- 최근 BBVA가 자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직접 진출도 점차 가속화
 - BBVA는 '23년 튀르키예에 커스터디 서비스 전담회사를 설립하고, '25.7월 스페인 내 리테일 손님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²⁾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도 규제 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략 수립 요구

- 최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맞물려 점차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시장 성장이 예상
- 다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은행과 제휴한 전문 기업 및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
 - 국내은행은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등 제휴를 통한 간접 진출을 추진
 - 향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위한 법인 영업 및 서비스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Citi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진출 예정('26)
DBS	- 자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플랫폼 출시('20)
BBVA	- 자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25.7)
Coinbase	- 거래소 자체 서비스 - BlackRock 등 대형 자산운용사 중심의 고객군
Fireblocks	- BNP Paribas, ANZ, BNY Mellon 등 대형 은행 중심의 고객군

자료 : 각 사, 언론 종합

■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구분 (법인/서비스명)	주요 내용
지분 투자	비트고 코리아 - 하나은행, 하나증권, SKT 등 투자 - 글로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노하우 보유
	KODA - 국민은행, 해시드 등 투자 - 국내 시장점유율 1위
	KDAC - 신한은행 등 투자 - CARDO 합병('24.7)
	BDACS - 우리은행 등 투자
자체 커스터디	업비트 - 거래소 자체 서비스 출시('25.8) - 스마트 전송 등 보안 기술 보유 및 빠른 시장 대응

자료 : 각 사, 언론 종합

[2] "BBVA launches its bitcoin and ether trading and custody service for all retail customers in Spain", BBVA, 2025.7.4

JP모건, 전략산업 육성 위한 1.5조 달러 투자

송형은 연구원

JP모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에 핵심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10년간 1.5조 달러 투자 계획인 보안 및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첨단 기술과 핵심 자원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4대 핵심영역인 공급망 및 첨단 제조업, 국방 및 항공우주, 에너지 자립 및 회복력, 첨단 및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사들도 첨단 산업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투자 체계와 자본공급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JP모건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을 위해 1.5조 달러 투자를 계획^[1]

- JP모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에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을 위한 안보 및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Security and Resiliency Initiative)를 발표
 - 이번 이니셔티브는 향후 10년간 1.5조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으로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정책대응이 아닌 상업적 프로젝트
-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직접 지분 투자 및 벤처캐피털 투자로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집행하여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
- 또한, JP모건은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투자 및 산업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더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회를 구성할 예정

■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

- JP모건의 CEO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 제품, 제조를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2]
 - 또한 미국 안보는 미국 경제의 강건함과 회복탄력성에 달려있으며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자본을 통해 미국 내 첨단 기술과 핵심 자원의 자립도를 높여 장기적인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1] "JPMorganChase launches \$1.5 trillion security and resiliency initiative to boost critical industries", JPMorganChase, 2025.10.

[2] "JPMorgan to invest up to \$10 billion in US national security as part of \$1.5 trillion pledge", Reuters, 2025.10

■ 이에 공급망 및 첨단 제조업, 국방 및 항공, 에너지, 첨단 기술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자

- 취약 분야 해소와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4대 핵심영역(① 공급망 및 첨단 제조업, ② 국방 및 항공우주, ③ 에너지 자립 및 회복탄력성, ④ 첨단 및 전략 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자문, 자금 조달, 자본 투자를 제공할 계획
 - 이 4가지 핵심영역을 조선, 핵에너지부터 나노소재, 중요 방위 부품까지 27개 세부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
- 이번 투자 발표로 정책 인프라 금융, M&A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신규 수익원 확대가 기대되며 초기에는 집행비용, 인력확충 등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금융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금융사들도 AI 및 첨단 산업 중심의 금융 투자 체계와 자본공급 역할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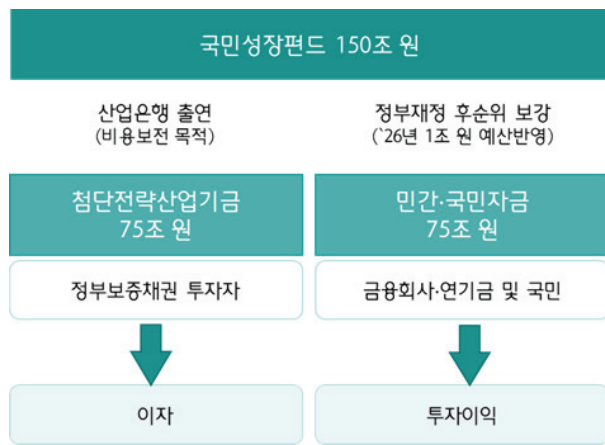
- JP모건의 투자 정책은 국가 산업육성과 금융자본의 연결을 통한 성장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생산적 금융과 유사
 - 국내 생산적 금융 정책도 부동산, 대출 중심의 자금배분을 기술 산업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지분투자 자본규제 완화, 포용금융·혁신금융 확대,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이 추진 중
-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그룹 자체의 자기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혁신 기업에 대한 주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
- 또한 첨단 기술과 금융을 융합할 수 있는 산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AI 인프라 등 미래 핵심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 

■ JP모건의 4대 핵심 투자 분야

분야	세부 분야
공급망 및 첨단 제조업 (Supply Chain and Advanced Manufacturing)	주요 광물, 제약 원료, 로봇 공학 등
국방 및 항공우주 (Defense and Aerospace)	방위 기술, 자율 시스템, 드론, 차세대 통신 및 보안 등
에너지 자립 및 회복력 (Energy Independence and Resilience)	배터리 저장, 전력망 개선,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및 전략 기술 (Frontier and Strategic Technologies)	AI,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등

자료 : JPMorganChase

■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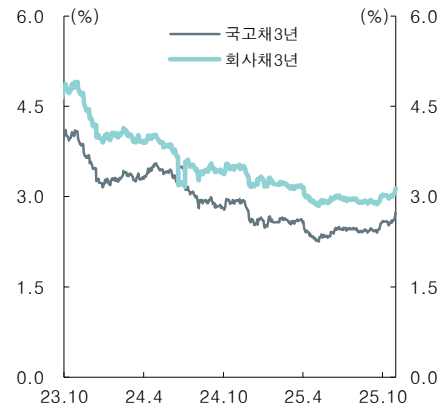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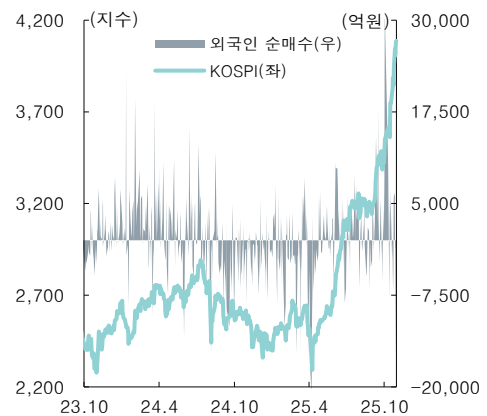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9월말	2.58	2.57	2.59	3.02	2.58	2.73
10월 24일	2.53	2.54	2.57	3.01	2.59	2.72
10월 27일	2.53	2.54	2.59	3.04	2.62	2.76
10월 28일	2.51	2.55	2.59	3.05	2.63	2.75
10월 29일	2.51	2.55	2.61	3.09	2.68	2.80
10월 30일	2.51	2.56	2.65	3.14	2.73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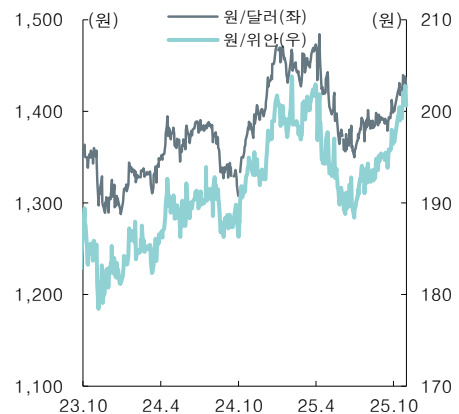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9월말	3,424.6	111,574	526	260
10월 24일	3,941.6	178,008	427	5,849
10월 27일	4,042.8	201,228	517	6,495
10월 28일	4,010.4	197,199	408	-16,410
10월 29일	4,081.2	220,332	467	-1,018
10월 30일	4,086.9	241,983	567	-1,178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9월말	1,402.9	948.5	197.1	1,646.0
10월 24일	1,437.1	940.0	201.8	1,670.8
10월 27일	1,431.7	936.3	201.3	1,667.0
10월 28일	1,437.7	944.9	202.7	1,674.8
10월 29일	1,431.7	937.3	201.9	1,660.9
10월 30일	1,426.5	925.3	200.6	1,6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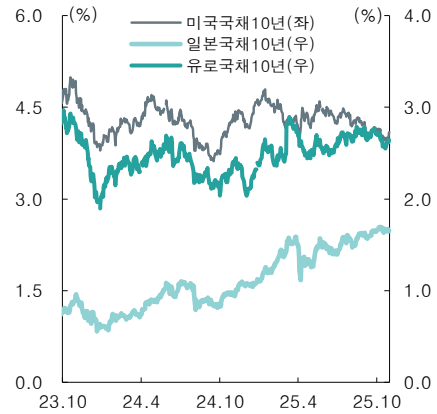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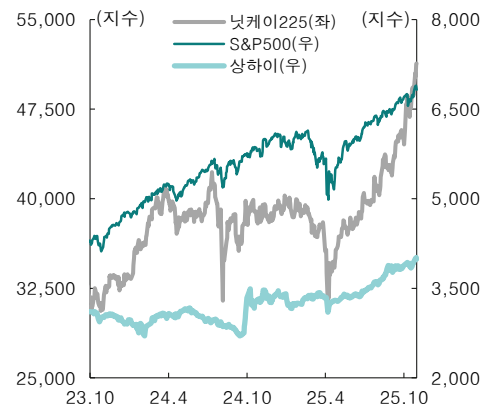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9월말	4.09	4.35	3.61	4.15	1.65	2.71
10월 24일	4.11	4.31	3.48	4.00	1.66	2.63
10월 27일	4.12	4.31	3.49	3.98	1.67	2.62
10월 28일	4.12	4.31	3.49	3.98	1.65	2.62
10월 29일	4.12	4.31	3.60	4.08	1.66	2.62
10월 30일	-	4.31	3.61	4.10	1.66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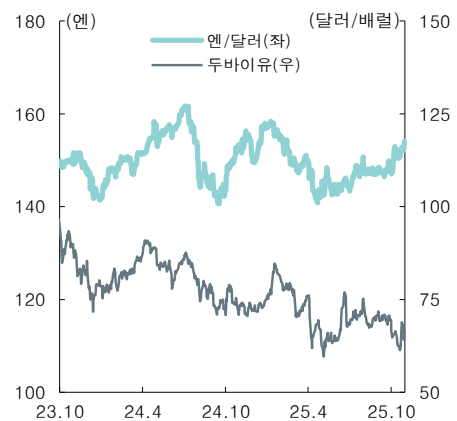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9월말	6,688.5	44,932.6	3,882.8	5,530.0
10월 24일	6,791.7	49,299.7	3,950.3	5,674.5
10월 27일	6,875.2	50,512.3	3,996.9	5,711.1
10월 28일	6,890.9	50,219.2	3,988.2	5,704.4
10월 29일	6,890.6	51,307.7	4,016.3	5,705.8
10월 30일	6,822.3	51,325.6	3,986.9	5,699.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9월말	147.83	1.173	69.3	3,873.2
10월 24일	152.82	1.163	68.8	4,137.8
10월 27일	152.84	1.164	67.7	4,019.7
10월 28일	152.08	1.165	65.0	3,983.1
10월 29일	152.71	1.160	64.2	4,000.7
10월 30일	154.09	1.156	66.4	4,048.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21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